[독일] 농산물 농약 잔여량 문제 제기

최근 그린피스에서는 '농약이 없는 식품 (Essen ohne Pestizide, 영문 Food without pesticides)'라는 보고서를 통해 독일에서 판매 중인 신선 과일 및 야채에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우려할 만한 수준의 농약 잔여량이 검출됐다고 강조하면서 신선 농산물 경작 시 농약살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린피스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22,000 개 이상의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80%의 과일, 55% 야채에서 농약 잔여량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녹색-황색-적색의 신호등 체계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농약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76 개의 과일과 야채에 대해 표기, 소비자들에게 어떤 제품을 피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들은 상당수가 유럽 연합 외부에서 수입된 것으로 특히 터키에서 수입된 포도, 피망, 배, 호박 등의 상당량이 유럽연합이 제정한 최대 농약 잔여 검출량 수준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 터키산 포도에서는 24 가지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와 태국에서 수입된 이국적인 야채인 오크라와 고추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며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상추에서도 상당히 높은 독성성분이 검출되어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의 소비자 정보 잡지인 *Öko-Test* 에서도 독일에서 판매 중인 신선 과일과 야채의 농약 검출에 대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린피스에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적색 표시를 해야 하는 제품으로 아래와 같은 품목과 원산지를 꼽았다.

- 가나산 파인애플
- 오스트리아산 사과
- 그리스산 살구
-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산 바나나
- 칠레,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산 배
- 이탈리아 및 스페인산 클레멘타인
- 브라질산 레몬
- 스페인산 만다린

- 태국산 망고
- 칠레산 자두
- 아르헨티나, 그리스, 스페인산 오렌지
- 브라질산 파파야
- 칠레, 독일, 인도산 포도
- 태국산 바질
- 태국산 고추
- 도미니카 공화국 및 태국산 그린빈
- 프랑스산 감자
-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산 상추
- 스페인산 당근
- 인도산 오크라
- 터키산 페퍼
- 모로코산 토마토
- 터키산 호박

(자료: www. fruitnet.com)